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17)

1. 한국 정부의 WTO 제소 관련

□ [WTO 동향]

- WTO는 9월 16일 “한국이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했다” 고 공식 발표¹⁾

□ [일본 정부 동향]

- (외무성) 모테기(茂木) 신임 외무장관은 WTO의 발표와 관련, “WTO의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 이라는 입장을 표명²⁾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이유로 제시하는 안전보장 문제의 정당성 인정 여부가 분쟁 심리 절차시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닛케이의 WTO 협정에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무역제한조치를 둘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WTO는 안보에 관한 분쟁 안전을 다룬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심리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함.³⁾
- 시즈오카신문은 최종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며, 한·일 관계의 악화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그에 더해 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싼 WTO의 최종 판단이 한일 대립 해소에 이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평가함.⁴⁾

1) 「Korea initiates WTO dispute complaint against Japanese export measures」 『WTO』 (2019. 9. 16). 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9_e/ds590rfc_16sep19_e.htm (검색일: 2019. 9. 17).

2) 外務省, 「茂木外務大臣臨時会見記録」 (2019. 9. 16)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868.html

3) 「韓国、日本をWTOに提訴、輸出管理厳格化で。」 『日本経済新聞』 (2019. 9. 17).

4) 「半導体巡り日本輸出規制強化 WTO、韓国の提訴発表」 『静岡新聞』 (2019. 9. 17).

2. 미·일 외무장관 회담

□ [양국 동향]

-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성은 9월 1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외무장관이 전화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간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전했다고 발표⁵⁾

□ [일본 언론 동향]

- NHK는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5) 「米國務長官「日韓、建設的対話を」。」『日本經濟新聞』(2019. 9. 17). 및 「日米外相が電話会談 “米は日韓対話の必要性を強調”米國務省」『NHK NEWS WEB』(2019. 9. 17).